

경제주평

-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목 차

■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분석 방법	2
3. 분석 결과	4
4. 시사점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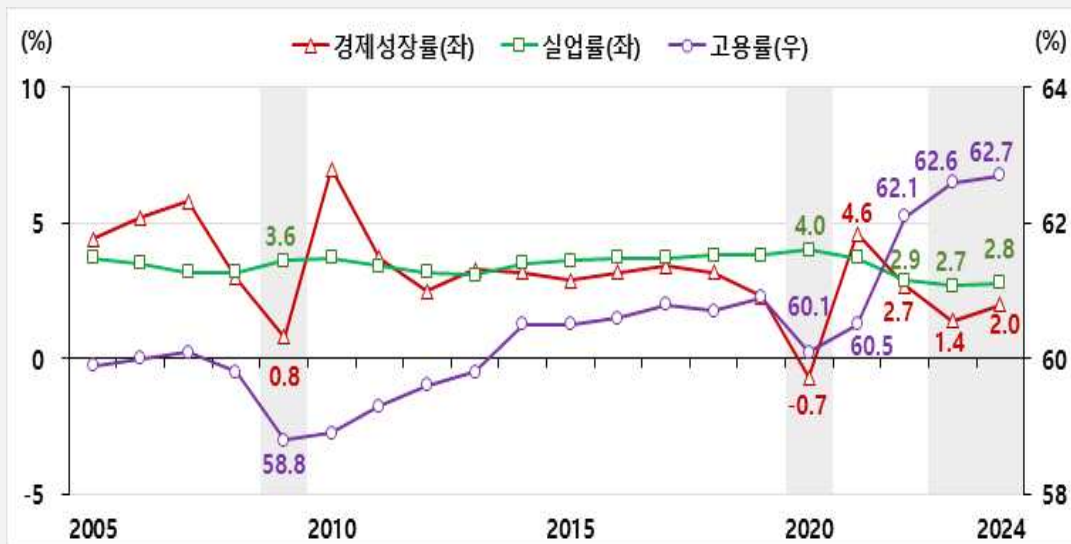
□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 경기 개선, 실업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

■ 개 요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성장 둔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실업의 유형 분석을 통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국내 실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제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분석 방법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해한 후 현재 고용 시장을 평가하였다.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실업자의 능력 및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과 괴리가 생겨 발생하며,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다.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 침체 시 총수요 감소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이며, 계절적 실업은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실업 분해에 활용된 데이터는 워크넷 통계 중 2022~2024년 직종·지역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 자료다. 연간 자료에는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절적 실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실업자를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정의한 후, 실업 분해를 통해 연도별 및 지역별 실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용 시장 현황을 평가하였다.

■ 분석 결과

① 전체 실업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산출한 전국 실업자는 2022년 305만 명, 2023년 316만 명, 2024년 31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 건수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전체 구직 건수도 감소하면서 30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남, 서울 등의 지역에서 실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 부산 등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하였다.

< 전국 실업자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 전국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 평균.

② 실업 분해

전체 실업을 분해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은 전국 평균 71.6%로 실업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각각 8.8%, 19.6%를 기록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의 경우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충청권은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적게 발생한 반면, 구조적 실업은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 호남권은 마찰적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경권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은 2024년 구조적 실업 비중이 가장 낮은 권역, 제주권은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이자 마찰적 실업이 가장 적게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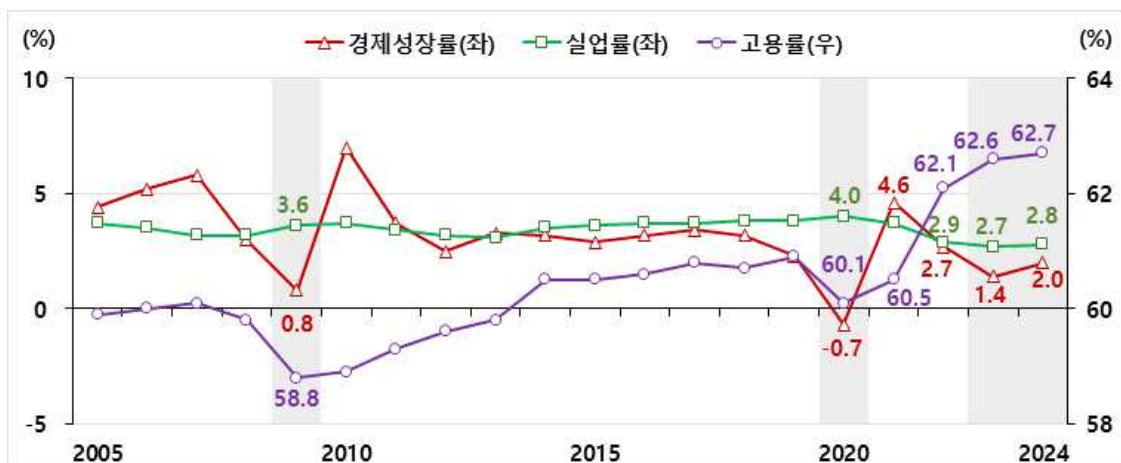
■ 시사점

고(高) 고용률·저(低)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으로 판단
 -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실업률, 고용률 등의 고용 지표는 오히려 양호한 수준을 유지
 - 팬데믹 영향으로 국내 경제는 2020년 -0.7%로 역성장한 후 2021년 4.6%로 급반등하였으나,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둔화
 - 반면에 국내 주요 고용 지표 중 실업률은 2023년 2.7%로 역대 최저치, 고용률은 2024년 6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25년 1월에도 실업률 및 고용률이 각각 3.7%, 61.0%(2000~2024년 1월 평균 4.0%, 58.4%)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는 외형상 호조세를 유지
 - 이는 과거 성장 둔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현상
 -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았던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과 2020년(코로나19 위기)에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급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된 바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실업의 유형 분석을 통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국내 실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 고용률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분석 방법1)

○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 수요 부족 실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해한 후 현재 고용 시장 평가

-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됨

-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실업자의 능력 및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과 괴리가 생겨 발생하며 만성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인 것이 특징
-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 시 총수요 감소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
- 계절적 실업은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 워크넷 통계 중 2022~2024년 직종·지역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해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통계연보의 직종·지역별 구인, 구직,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 실업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분해
- 2024년의 경우 연보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월별 구인구직통계를 항목별로 합산하여 계산
- 연간 자료에는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절적 실업은 제외하고 분석

< 실업의 유형 >

$$U_T = U_s + U_f + U_d$$

U_s = 구조적 실업, U_f = 마찰적 실업, U_d = 노동수요 부족 실업

1) 장재호·홍현균(2008), 워크넷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구직자 미스매치 분해, e-고용이슈, 2008-27호, 한국고용정보원. 김을식(2013),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의 특징과 추이, GRI연구논총, 15(3), 263-286.

- 실업자를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노동수요 부족 실업으로 분해
 - 구조적 실업은 구직자의 직종 간 이동이 불가능해 발생하므로 전체 취업 가능 건수에서 직종별 취업 가능 건수의 합을 감하여 산출
 - 마찰적 실업은 해당 직종에 취업할 수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직종별 취업 가능 건수의 합에서 직종별 취업 건수의 합을 감하여 산출
 -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구인 인원을 감하여 산출
 - 이때 취업 가능 건수²⁾는 구직 건수와 구인 인원 중 작은 값으로 정의

< 실업 분해 방법 >

유형	분해 방법
전체	$U_T = U - E$ $U = \text{구직건수}, E = \text{취업건수}$
구조적 실업	$U_s = EP - \sum EP_i$ $EP = \text{취업 가능 건수}, EP_i = \text{직종 } i \text{의 취업 가능 건수}$
마찰적 실업	$U_f = \sum (EP_i - E_i)$ $EP_i = \text{직종 } i \text{의 취업 가능 건수}, E_i = \text{직종 } i \text{의 취업 건수}$
노동수요 부족 실업	$U_d = U - V$ $U = \text{구직건수}, V = \text{구인인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장재호·홍현균(2008), 김을식(2013) 참고.

- 실업 분해를 통해 연도별 및 지역별 실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용 시장 현황을 평가
 - 현재 고용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고용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고용 시장 현황을 평가
 - 다만, 분석에 활용한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구인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전체 고용 시장을 완벽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2) $EP = \min(U, V)$, $U = \text{구직 건수}$, $V = \text{구인인원}$.

3. 분석 결과

① 전체 실업

○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2~2024년 실업자는 300만 명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산출한 전국 실업자는 2022년 305만 명, 2023년 316만 명, 2024년 313만 명
- 전체 취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구직 건수도 감소하면서 300만 명대 수준을 유지

- 2024년에는 전남, 서울 등의 지역에서 실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기, 부산 등에서는 실업자가 감소

- 2024년 경기의 실업자는 83만 명으로 2023년 대비 약 3만 명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전남, 강원, 충북 등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부산, 인천, 경남 등에서는 감소

< 전국 실업자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 2024년 지역별 실업자 >

(단위: 만 명)

지역	실업자	지역	실업자
서울	54 (+1.1)	강원	8 (+0.9)
부산	25 (-1.7)	충북	9 (+0.8)
대구	16 (-0.9)	충남	11 (+0.5)
인천	20 (-1.1)	전북	11 (+0.7)
광주	10 (+0.0)	전남	8 (+1.5)
대전	9 (-0.6)	경북	16 (+0.1)
울산	9 (-0.2)	경남	20 (-1.0)
세종	2 (+0.2)	제주	3 (+0.5)
경기	83 (-3.1)	전국	313 (-2.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전년 대비 실업자 증감을 의미.

② 실업 분해

○ 전체 실업을 분해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71.6%로 실업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사

- 2022~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각각 45.5%, 56.2%, 71.6%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이어짐
- 또한, 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각각 8.8%, 19.6%를 기록

-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음

-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수도권 평균은 줄곧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2024년에는 80% 수준까지 근접
- 2024년 기준 다른 권역과 달리 예술·디자인·방송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서의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두드러짐
- 한편,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

< 전국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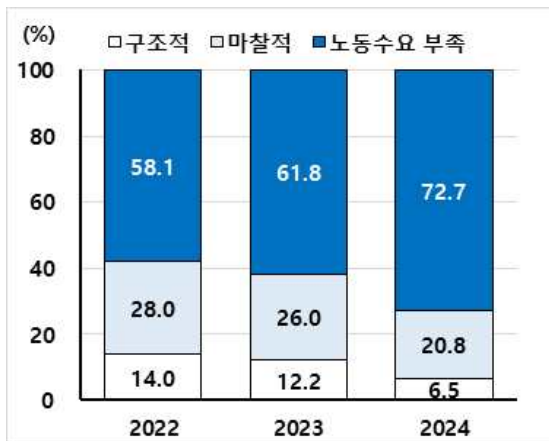
< 수도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서울, 인천, 경기 평균.

- 동남권의 경우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상회
 - 동남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
 - 2024년 기준 동남권의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음식 서비스직에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한편,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2024년에는 각각 전국 평균보다 높은 26.0%, 20.8%를 기록
- 충청권은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적게 발생한 반면, 구조적 실업은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분석
 -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의 평균은 67.2%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
 - 반면, 구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2024년에는 권역 중에서 유일하게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

< 동남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산, 울산, 경남 평균.

< 충청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평균.

- 호남권은 권역 중 마찰적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나타남
 - 호남권의 노동수요 부족 실업 및 구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은 각각 증가세와 감소세를 지속
 - 반면,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은 2024년에 증가세로 전환,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가장 높은 권역인 것으로 분석됨

- 대경권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마찰적 실업 비중의 평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대경권 평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2024년 기준 건설·채굴직에서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많이 발생
- 한편, 마찰적 실업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

< 호남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광주, 전북, 전남 평균.

< 대경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대구, 경북 평균.

- 강원권은 2024년 구조적 실업 비중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그 비중이 3.6%인 것으로 분석

- 제주권은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마찰적 실업은 가장 적게 발생한 권역인 것으로 나타남

< 강원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 제주권 실업 분해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참고> 권역별·직종별 노동수요 부족 실업 현황(2024년 기준)

- 전국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만큼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종별 분석을 추가 진행
- 2024년 기준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경영·행정·사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보건·의료직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경영·행정·사무직(28.1%)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예술·디자인·방송직(9.2%)과 보건·의료직(8.0%) 순임
 - 보건·의료직에서의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발생한 반면, 예술·디자인·방송직에서의 노동수요 부족 실업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향으로 상위권을 차지

< 권역별 노동수요 부족 실업 상위 직종 및 비중 >

지역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전국		28.1	예술·디자인·방송직	9.2	보건·의료직	8.0
수도권		28.5	예술·디자인·방송직	12.5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1
동남권		27.1	보건·의료직	8.9	음식 서비스직	6.8
충청권	경영·행정·사무직	32.5	건설·채굴직	9.5	보건·의료직	9.1
호남권		26.6	보건·의료직	11.8	음식 서비스직	6.6
대경권		26.1	보건·의료직	9.7	건설·채굴직	7.0
강원권		27.4	건설·채굴직	10.1	보건·의료직	7.1
제주권		25.6	음식 서비스직	11.5	건설·채굴직	6.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4년 기준.

4. 시사점

- 고(高) 고용률·저(低)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여야 함

첫째,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 올해 1% 중반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정책당국은 첨단 IT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필요한 투자 추진, 기업 규제 완화, 전략산업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통화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경기 활성화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우세하지만,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존재
-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업자가 새로운 직종 및 산업에서 일자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 특히, AI 등 미래 첨단 기술 및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인재 양성 및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직자·구인자들이 효과적으로 취업·채용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는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저리 대출, 정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속 지원하여 창업 기업의 초기 생존을 보장하고 기업이 성장 및 안정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마케팅 지원,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음 **HRI**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